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게 제24894호】 주제104 (2015)년 4월 2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5대 훈련방침을 제시하신 40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4대 훈련원칙을 제시하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싸움준비완성에서 면이 나는 해로 되도록 하기 위한 백두산훈련열풍이 전군에 융암처럼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인민군대 전투정치훈련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철벽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나오는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대회에는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피똥는 심장에 새겨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총정의 땀방울을 흘리며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 군사교육기관, 련관부분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총대위력을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백배전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한 무장장비들과 《5대 훈련방침》, 《4대 훈련원칙》이라는 글발이 형성되어있는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륭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군대의 훈련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역사적인 리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륭군대장 리영길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훈련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결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당백주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들과 선전화가 나붙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훈련일군들, 군인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뿌리를 다지기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격변의 시기에 불패의 조선인민군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백방으로 다지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장에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색바랜 군복을 언제 한번 벗을 사이 없이 전투정치훈련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으며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 사회주의조국의 모든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영웅한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군사훈련사상을 제시하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앞에 제시하신 5대 훈련방침과 《일당백》구호는 우리 혁명무력의 훈련목표를 밝혀주는 백승의 표대이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빨찌산구호는 전군을 훈련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최정에혁명강군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1 면에서 계속

주체 79(1990)년 5월 28일  
음소 조선인민군 훈련일군강습  
을 마련하여주시고 력사적인  
서한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자>  
를 보내주시신것은 훈련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훈련  
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제시  
하시고 전투정치훈련을 우리  
당의 5대 훈련방침과 4대 훈련  
원칙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  
었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훈련길에 새겨오신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장장  
80여성상에 이르는 우리 혁명  
무력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제적  
인 군사훈련사상과 백두산  
훈련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  
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력강  
화의 4대전략적선언을 제시하시고 훈련전  
선에서부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모든 훈련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  
하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을 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일관시키며 군위부  
대운동도 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장병들  
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  
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힘있게 벌리  
도록 하시고 훈련에 대한 평가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수령중심론, 군인대중중심론에 기초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훈련방침을 제시  
하시어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  
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며 백전백승  
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  
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증을 안겨주시신것  
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체의  
군건설사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  
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장병들을 완벽한 실천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필멸하는 싸움군으로 키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훈련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지  
휘성원들부터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늘 화약내풍기는 싸움마당을



위대한 김정은혁명강군의 정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  
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와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신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소대  
장, 중대장을 비롯한 훈련집행  
자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중대, 대대훈련에서부터 질적변  
화를 가져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훈련을 강화하는  
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복  
종지향시키고 군인대중의 무궁  
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  
폭발시키며 부대, 구분대별경쟁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정치  
훈련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  
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  
으켜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지휘  
성원들과 훈련일군들에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훈련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고 군중, 병중, 전문  
병부대, 구분대들을 각이한 전투정황에 맞  
는 종합적인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키도록  
하시였으며 비행사들이 가장 극악하고 복  
잡한 정황속에서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하도  
록 지도하여주시면서 항공군이 당의 훈련  
방침관철에서 기수가 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군  
이 명사수, 명포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군인들이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올해 첫 명포수들이 일당백의 고향부대  
에서 나오는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회장을  
수여하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  
었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한결같은 충정  
의 마음을 담아 선군혁명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명군술로 훈련강화

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  
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이고 철의  
의지이라고 하면서 지난 기간 전투정치  
훈련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부족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제적  
군사사상과 유훈을 혁명무력강화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인민군대의 전투정치훈련에서 혁명  
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혁명적도덕의리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훈련의 모든 공정과 계기를  
철두철미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으로 일관시켜야 한다.

훈련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훈련을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전술사상과 주제전법에 맞게 가장  
극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조직진행하여  
야 할것이다.

그는 회세의 천출명장,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김정은혁명강군

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  
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칼바  
람을 맞으며 억세게 버려진 혁명의 총대  
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백두산훈  
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  
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리영  
래, 강호범, 김상철, 진용철, 리선학, 군관  
들인 유덕철, 윤호진, 립설, 공영길, 조영  
수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전  
투훈련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인민군대훈련의 새로  
운 전변의 력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호모의 정을 격조높이 토로하  
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당의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 4대전략적선언을 전투훈련  
강화의 항구적인 지침으로 틀어쥐고 훈련  
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  
여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전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인  
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가 랑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장령 김락겸, 군관들인 황  
용운, 주인수, 유덕철, 김경수, 공영  
길, 립장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  
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례없  
이 큰 규모로 특색있게 진행된 이번 대회  
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훈련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박  
한 과업은 훈련혁명을 일으켜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투준비를 완성하고 모든 지  
휘성원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정치사  
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  
튼히 준비시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3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 2 면 에서 계 속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훈련이자 싸움준비이라고 하시면서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이라고 하시었다.

우리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 멧따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강도높은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본 대회에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었다.

훈련혁명의 목표는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매기싸움군으로 준비시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제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혁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적들과의 대결은 물리적힘의 대결이기에 전에 사상과 신념, 도덕의 대결이며 정치사상적, 도덕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최강의 무기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영웅적전투정신은 숭고한 사상과 혁명적도덕의리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쌓기등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훈련을 작전전투 훈련에 앞세우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을

싸움군으로 키우기 전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훈련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혁명수행에서 중심고리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전훈련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종자를 바로귀고 훈련설계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훈련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많이 조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현대전은 지휘관들의 머리싸움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 참모부일군들에게 논리

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드센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인이려면 누구나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그 어떤 험산준령과 강하천도 단숨에 극복할수 있는 높은 행군능력과 수영능력을 소유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과학화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주체의 군사훈련학을 과학리론적으로 정립하고 모든 지휘관들과 훈련일군들이 그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 4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3 면 에서 계속

작전전투훈련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전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훈련원칙과 내용의 전면적구현이며 심화발전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을 훈련혁명의 종자로, 중심고리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훈련사상과 방침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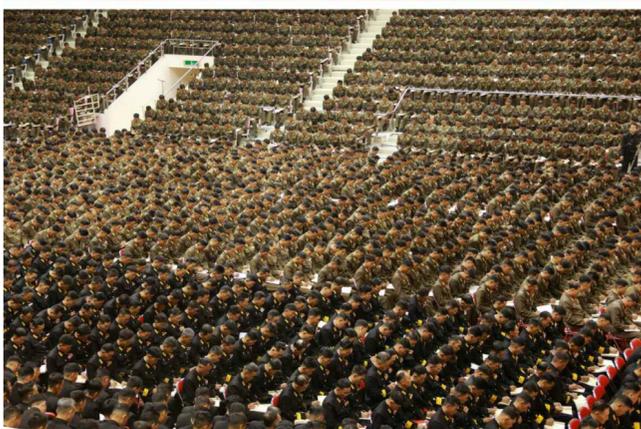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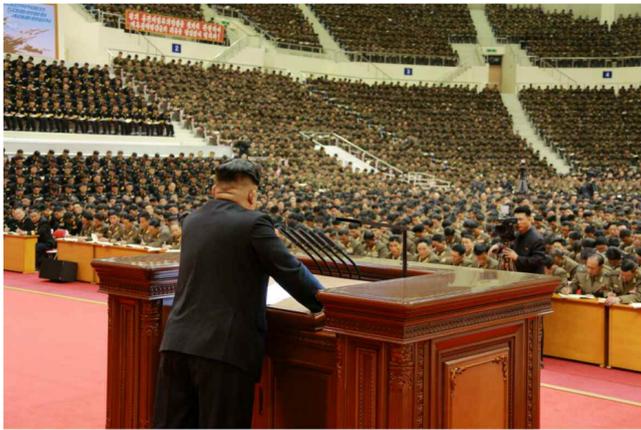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사훈련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군사훈련학의 원리와 원칙, 내용을 뚜렷이 밝혀주는 훈련대강이며 오늘날 매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훈련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훈련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며 그것을 한치라도 어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투정치훈련은 망심이고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훈련일군들은 죽으나 사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단란을 헤치며 용감히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에서 맡겨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훈련초소에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훈련일군들은 군력강화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와 과학리론적, 실무적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며 이신



이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군인들의 앞가슴에 훈련영웅의 훈장과 메달이 빛을 뿌릴 그날에는 군인들이 딛고 올라설 시상대의 받침대가 되어주는 그런 훈련일군이 되어야 우리 당이 바라는 진정한 훈련일군으로서 군인들의 가슴을 울릴수 있고 그들의 훈련열의를 비상히 높여 부대, 구분대들의 훈련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 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명도가 있고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미더운 훈련일군대부대가 있기에 인민군대훈련에서는 반드시 혁명적전환이 일어날것이며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불패의 위력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훈련의 질을 높임으로써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장은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티쳐올리는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모든 부대와 군인들을 무적의 싸움군부대, 백두산호랑이부대로,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이 휘날리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갈 총정의 맹세를 담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는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건군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빛내이며 백두산훈련열풍으로 역세게 다져진 무적의 총대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대회합으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훈련혁명수행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훈련일군대렬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는 일군들로 잘 꾸리고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그들이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혁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오중총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근위부대운동에서는 부대들을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기본투쟁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당이 발기한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여러가지 훈련경기도 많이 조직하여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의

경쟁열, 훈련열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심장의 붉은 피를 펄펄 끓이며 훈련, 훈련 또 훈련하여 조국이 알고 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훈련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훈련일군대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어제는 총포탄이 작렬하고 바다바람세찬 훈련장에서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을 밝혀주시고 오늘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연설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 훈련일군대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인민군대에서 훈련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고 토론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소집되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는 훈련부문에 남아있는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훈련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는 력사적인 대회합으로서 백두산혁명강군건설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훈련이자 당의 보위, 사회주의조국보위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훈련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데서 도화선이 되고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훈련일군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령을 치며 군인들의 앞장에서 촉한과 무더위를 헤치고 남먼저 달려나가야 하며 군인들과 똑같이 무기를 잡고 훈련장에 나가 눈비가 오면 군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칼벼랑이 막아나서면 어깨를 내대고 딛고 오를 발판이 되어주며 또 여울이 나지면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머나먼 행군길에서는 편한 신발창이 되어주며 추위하면 모닥불이 되어주고 더위하면 선들 바람이 되어주며 총탄이 날아들면 방패막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당과 공화국, 군인들이 세워졌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특공, 해군, 항공 및 방공공군, 로동적위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영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영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시작된 신군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꽃바구니 진정

오는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영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밭들이 씌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적혁명무력의 창건과 강화발전예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각계층 군중

의 흐름이 그칠새 없었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천출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났다

【자카르타 4월 23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과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헬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쑤영똥,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를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담화를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그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들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 것을 부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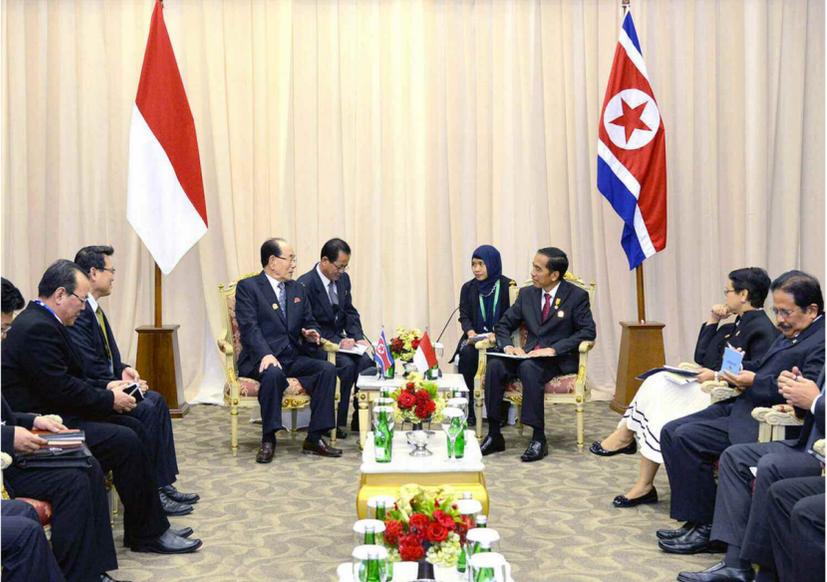
김영남동지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쌍무관계발전문제와 협력불가

담운들의 강화발전을 비롯하여 호상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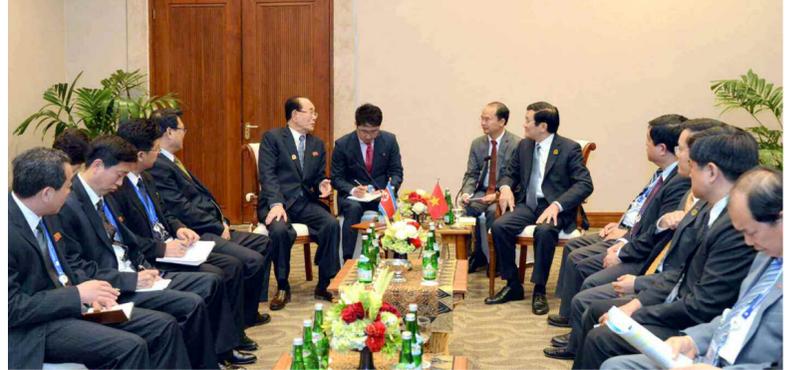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김영남동지는 또한 에리트레아공

화국 내각 수상 이브라힘 마홀라브

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헬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란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다트 에스 살람

###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레 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민족적명예인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5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탄자니아정부와 인민이 독립후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4(2015)년 4월 23일 평양

# 주체적인 유격전법을 창조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탁월한 군사전문가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합법적전면적으로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개시하신 첫 시기부터 우리 식의 독창적인 유격전법들을 창조해나가지 않았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후 체계기된 무장투쟁론과 전면적인 무장공작론 등의 제한성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유격전의 전술적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그후 무장투쟁을 벌리시면서 얻으신 귀중한 군사경험들에 기초하여 1933년 4월과 11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유격대들작》, 《유격대대사식》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주체적인 유격전법을 체계화하시면서 유격전의 중요한 전술적원칙과 유격대의 활동원칙

을 천명하시였다.

유격전의 요구에 맞는 전술적원칙과 활동원칙들, 전투형태들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항일의 나날 독창적인 유격전법들을 풍부히 하시고 적극 활용하시였다.

1932년 5월 선군혁명명사의 첫페이지에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거둔 첫 승리로 아로새겨진 소영자령전투에서 은제지들을 리용하여 우세한 적들이 자기 힘을 다 내지 못하도록 불의에 타격하는 전투형식인 매복전법이 창조되었다.

항일무장투쟁사에서 대표적인 유인매복전의 하나인 로혹산전투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기발한 전법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재지와 령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 고 적극 활용하신 통쾌한 전법들중에는 만원전술도 있다. 앞뒤에 적이 나타났을 때 또

주도적으로 적들속에 들어가서 몇발의 총소리를 내고 슬쩍 빠져서와 적들로 하여금 제물들끼리 서로 맞붙일하게 하는 전법은 흥토산전투, 부후물등산전투, 소덕수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일행천리전술은 유인과 속공속결, 병력의 집중과 분산, 이동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명활한 유격전술이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치며 동쪽과 서쪽의 적을 다같이 치는 동성서격전술로 력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무궁현성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법은 그후 세계 《최강》을 뽐내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심화발전되었다.

백두산혁명군들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인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유격전법의 빛나는 승리의 전통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질것이다.

#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려사릉들과 려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 있었다.

렬사릉들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백두산전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 인민무력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과학, 교육, 보건, 출판

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놓여 있었다.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밭들이 씌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삶을 빛낸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시급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맹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밭들이 씌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삶을 빛낸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체 참가자들은 려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 주조 무관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혁명렬사릉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무관단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백두산전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밭들이 씌여져 있었다.

무관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혁명렬사릉과 려사묘의 맹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조선중앙통신》

#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에 25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에 25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삶을 빛낸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삶을 빛낸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창건 83돐을 축하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수도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진마차에 승리의 포성을 울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건군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끝없는 환희가 평양역,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끓어올랐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무도회장에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참가자들은 자주시대 혁명무력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 비범한 의지와 탁월한 전공술,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한세대 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 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등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동무를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선군의 기치높이 강위력한 흥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시고 내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의 정이 뜨겁게 어그러졌다.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르며 세태와 세기를 이어 백승만을 펼쳐온 최정예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청년들은 **《유격대행진곡》**, **《밀림속의 순진가》** 등의 노래들에 맞추어 박력있게 춤을 추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두산갈마판에 뜻을 달고 더욱 강성인영할 선군조선의 미래를 앞당겨가는 희열과 광만이 넘쳐 흐르는 춤바다를 펼쳐놓는 참가자들은 흥겨운 춤바다를 펼쳐놓는 가운데 **《용해야》**, **《출라리》**, **《황금산타령》**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무도회분위기는 한층 고조를 이루었다. 무도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청년학생들의 불타는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25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또 한편의 백두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필승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혁명강군을 가진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건군절을 맞이하는 녀성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우아하고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이 흥대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 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군사적태도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춤동무를 펼쳐나갔다. 그들은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운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

##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회세의 선군명장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선군리리리》**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손바탕을 치면서 어깨들씩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녀성들의 끝없는 광만과 열정을 더**

해주는듯 **《출라리》**, **《황금산타령》**, **《돈돌라리》** 등의 노래들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자랑찬 행로에 빛나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필승의 신심을 안고 **《7.27행진곡》**, **《조선에서 만나자》**, **《조선행렬치**

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며 춤동무를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민인이 사랑**

하는 우리 평도자》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는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원군사업을 더욱 잘하고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의 국강력강화에 참담계 기여해나갈 녀성들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 평양체육관광장에서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을 맞으며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였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펼쳐나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뜻깊은 올해의 건군절을 인민의 대표들과 함께 경축하는 인민군대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번째가 되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경축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인민대표단들이 부대들에 도착하자 인민군장병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인민군대원들의 열광적인 박수**

##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전군절에 즈음하여 인민대표단들 조선인민군 부대들 방문

속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선군명령의 크나큰 사랑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군인들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백두의 대업을 흥대로 굳건히 담보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펼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전야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는 인민대표단성원들과 친혈육을 만난듯 일제안고 돌아가는 군인들로 하여 부대들마다에는 군민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었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

을 일으키고있는 후방소식을 전해주고 원호품들도 넘겨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부대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군대의 혁명적정신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승의 위훈을 아로 새겨는 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그러 있었다.

그들은 부대들에서 군인들과 함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경축 보고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군민대단결의 숭고한 화폭이 오존층 7번째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조영일소속부대에 펼쳐졌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부대들 찾으시고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데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며 교양실과 병실, 식당, 부식실 창고 등을 돌아보고 예술소품공

연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실 영광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는 병사들의 심정을 생동하게 지켜가고있는 해군부대들에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사단에》** 등의 노래가 산발들에 메아리쳤다.

대표단성원들은 당의 5대 훈련방침에서 40년과 4대 훈련원칙에서 25년이 되는 올해에 백두의 훈련명령을 일으키며 일당백의 만능병사, 최정예전투대로로 준비해가고있는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주의깊게 보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아 혁명적군인정신, 인민문화로 사회를 선도해나가고있는 군인들의 전투적이며 보람찬 군부생활은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투정지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병사들과 이야기도 나누면

서 군사부부의 나날을 빛나는 위훈으로 새겨갈것을 바라는 인민의 뜨거운 당부를 전하였다.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해군부대들에 군대와 인민의 혈육의 정이 차고 넘치었다.

오존층 7번째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한계호소속부대를 방문한 인민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모신 유화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지도표시함과 혁명사적교양실 등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올해를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전투정지훈련을 맹렬히 벌리면서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적지대로 준비해가고있는 해병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힘을 안겨 주었다. 군인들이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들고 원민의 길에 꽃피운 아름다운 소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이런 인민의 군대가 있어 피어던 항일의 나날에 마련된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꽃피어나고있음을 절감하였다.

대표단성원들과 군인들은 예술공연무대에 펼쳐놓았다. 조국수호의 항로에서는 직선 돌격전로만 있을뿐이라는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환음이 그대로 어귀가 되어 원수들을 겁주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렁해버릴 불타는 열의에 넘쳐 행렬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소리가 군항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조선인민군 창건 83돐을 맞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펼쳐나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뜻깊은 올해의 건군절을 인민의 대표들과 함께 경축하는 인민군대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를 방문한 인민대표단성원들은 부대의 강화발전 에 갖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명도영적 을 깊이 새기었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탐사행군대 성원들에게 대대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의 제일신봉자, 제일관철자가 되어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실현하는데서 전군의 앞장에서 나아가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이곳 군인들의 모습은 대표단 성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담력과 배짱을 닮은 불패의 항풍 및 반항공군 이 있어 사수되여 조국의 하늘은 언제든 푸를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웠다. 인민대표단성원들과 군인들은 계속 및 유포오락경기도 함께 하고 공연무대에서 **《나는 영연**

히 그대의 아들》, **《우리는 출격 명령만 기다린다》** 등의 노래도 부르면서 군민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부대장병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절세위인영웅을 세차게 일으켜 일당 백승을 내리 면 백두산번개처럼 원수들을 단숨에 격멸소탕하는 일당백용 사로든런 준비할것을 부락하였다.

전체 인민군대원들은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명심하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철승같이 수호하며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최정예혁명강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갈 결로 가슴 불태웠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 을 맞으며 진행된 인민대표단의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방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찬란한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련방 정부경제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번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산

드르 갈루슈카원동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연방 정부 경제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대양민족의 친단반미배를 담보해주시고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세계사주화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 반동회의 60돐 기념행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반동회의 60돐 기념행사가 24일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아시아, 아프리카 90여개 나라와 지역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

하였다. 참가자들은 1955년 반동회의 장소였던 독립청사에서 예술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기념록화물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의 력사 1955-2015》**를 시청 하였다.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대통령

조로 위도도의 환영연설에 이어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여 짐바브웨대통령,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만다라대통령, 중동지역을 대표하여 예트드수상, 울찌버를 대표하여 베네수엘라부대통령이 각각 연설하

## 로씨야방문 원유공업성대표단 출발

로씨야 방문하기 위해 배학 원유공업성 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원유공업성 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원유공업성 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 월남에 가는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출발

월남에 가는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월남에 가는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월남에 가는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2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 래양철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떠나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5일 평양을 떠나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5일 평양을 떠나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5일 평양을 떠나갔다.

##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사립국 회지 전승하였다. 대한제국 동포회 대표단이 25일 평양을 떠나갔다.

사립국 회지 전승하였다. 대한제국 동포회 대표단이 25일 평양을 떠나갔다.

사립국 회지 전승하였다. 대한제국 동포회 대표단이 25일 평양을 떠나갔다.